

삼성바이오, 美에 첫 생산거점 확보... 글로벌 공급망 구축

GSK와 HGS 생산시설 인수 계약
4000억 규모, 내년 1분기 절차 완료

최근 생산능력 78.5만 리터 확대
2032년 132.4만 리터 확대 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첫 생산거점을 확보하며 순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단순 생산능력 확대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CDMO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한 휴먼 지놈 사이언스(HGS)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2억8000만 달러(약 4147



미국 메릴랜드 락빌 소재 '휴먼 지놈 사이언스' 바이오의약품 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억원)이며 인수 절차는 오는 2026년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생산시설은 총 6만 리터(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공장으로서 두 개의 제조동으로 구성됐다.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다양한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운영 안정성을 위해 해당 공장 경험을 보유한 현지 인력 500여 명도 전원 고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 생산에 대

한 계약까지 승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위탁생산(CMO)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송도에서도 초격차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1바이오캠퍼스 내 2공장에 1000리터(L) 바이오리액터 1대를 추가 도입했다. 총 생산 능력을 78만4000리터(L)에서 78만5000리터(L)로 늘린 것이다. 현재 제1바이오캠퍼스 1~4공장

은 풀 가동하고 있고 제2바이오캠퍼스 5공장은 랩트 업 단계에 있다.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에 6~8공장을 완성해 총 생산 능력을 132만4000리터(L)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인천 송도 내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까지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송도 바이오캠퍼스와 미국 락빌 공장을 연결하는 이원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고객사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생산 옵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미국 락빌에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북미 등 해외 고객과 협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역별 공급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하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예고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은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제

한할 경우, 미국과 중국 기업에서는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며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존 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이라며 "연방·주·지방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 지원과 바이오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지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락빌 시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지스 시마르 GSK 글로벌 공급망 총괄 사장은 "이번 거래를 통해 장기 파트너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락빌 생산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환자들을 위한 주요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GSK 역시 글로벌 공급망 운영의 안정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올해 車 수출 역대최대 전망

산업부, 11월 누적수출 660억 달러
대미 수출액 5.1% 증가 '상승 전환'

올해 1~11월 한국 자동차 수출이 66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자동차수출액은 710억달러를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자동차수출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올해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한 인천항·평택항 선적 차질에 따른 지연효과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수출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6억9000만

달러로 5.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수입차 관세로 부진했던 대미 수출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억2000만달러로 3.4% 증가했고, 기타 유럽(51.8%), 아시아(32.1%), 중동(8.0%), 중남미(29.0%) 등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친환경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만8000여 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이상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수출은 5만4000대, 수출액 기준 1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0만대를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도입하기로

>> 1면 '이찬진 금감원장...'서 계속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에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무 시너지는 물론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분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보험 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또 민생 금융 범죄를 대상으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민생특별사법경찰추진반(TF)'을 설립해, 특사경 관련 법령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신 금융 범죄 수법과 동향 등 정보를 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크고 작은 인생의 순간들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나와살아가는보험을만나다

한화손해보험 전속모델 고윤정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난임 진단비 보장

난임진단비(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
(보장 종료일은 보험나이 48세까지, 보험 가입
1년간 보장 제외, 최초 1회한)

몸 건강을 넘어 마음 건강까지 케어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
정신질환) A*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 후 1년
이내 50% 지급, 최초 1회한, 세부보장별 지급조건 상이)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A: 과다수면장애 [과다수면], 수면무호흡, 발작수면 및
히탈발작, 비기질성 과다수면, 비전형적 신경성 식욕부진, 비전형 신경성 폭식증, 우울 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5928호(2025.12.08~2026.12.07)



채팅 상담하기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